

# 풍수지리 허한 곳에 계담 조성 길한 땅 만들어

## 계담

계담(溪澗)은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를 인공적으로 막아 못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계담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사찰에서 계담을 조성했던 까닭은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수자원적 가치 때문이다. 스님들은 이러한 가치를 잘 파악해 계담을 만들어 충분히 활용했다. 계담은 풍수지리적으로 허한 땅이나 좋지 않은 땅을 길한 땅으로 만든다. 계담은 필요한 비보와 염승의 기능을 했고, 경관적으로는 아름다운 미적 대상으로 기능했으며, 자원적으로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물을 비축하기 위한 저수조로 기능했다.

우리나라 사찰은 기본적으로 장풍득수하기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있다. 좋은 땅의 조건은 좌청룡·우백호·남주작·북현무의 형성이 뚜렷함과 동시에 계간수가 풍부해 음과 양의 기운이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용의 기가 뭉친 혈 앞에 깨끗한 물이 고여 용맥의 생기가 보호돼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못이 형성돼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공적으로 못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 못이 바로 계담이다.

경관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담은 대체로 세 가지의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계담에 물을 고이게 하여 주변의 삼라만상을 비치도록 하는 영지의 효과, 못물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시각적 효과, 계담에 고인 물이 보를 넘어 떨어지면서 형성하는 폭포의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계담은 방화수나 허드렛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되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 위한 욕조가 되기도 하였다. 방화수는 목조건물이 주었던 산지사찰에서는 매우 긴요한 쓰임새를 가졌을 것이다. 특별히 욕실을 갖추지 못했던 지난날의 형편을 감안할 때, 계담은 훌륭한 욕조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정사 계담은 경관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찰에 만들어진 계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송광사 계담이다. 송광사 계담은 아름다운 수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수경관 자체의 아름다움도 일품이지만 물 위에 그림자가 비치는 영지효과와 계담의 물이 보를 넘어 떨어지는 폭포효과가 이 계담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준다. 송광사 계담은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쪽 편으로 길게 자리를 잡고 있다. 멀리 조계산에서 내려오는 자연계류를 막아서 만들었다. 송광사 계담에는 무지개 다리와 그 다리 위에 회랑 모양으로 길게 건축한 우화각, 육감정(六鑑亭)이라는 현관이 걸려 있는 임경당(臨鏡堂) 건물이 사시사철 물에 그림자를 비치고 있다. 그야말로 특별한 세계를 연출한다. 여기에서 육감정이란 말은 육근(六根: 眼, 耳, 鼻, 舌, 身, 意)을 고요히 해 지혜롭게 마음을 비취보는(鑑) 정자라는

### 사찰 수자원 가치 빛나는 계담 저수조·경관 조성 등 다기능 송광사 계담은 경관 조성 위함 백양사·해인사 등 영지 기능

의미이다. 임경당은 거울 같은 물가에 가깝게 지은 집이란 뜻일 것이니 송광사 계담은 일찍부터 송광사의 경관에 의미를 부여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백양사 계담도 빼놓을 수 없는 사례이다. 백양사 계담은 백양사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돼 있다. 송광사 계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면적이 넓다. 백양사에 언제부터 계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으나 오래된 누각인 쌍계루와의 상관성을 따져 볼 때, 계담의 역사 또한 오래되었음이 분명하다. 단지 지금과 같은 규모의 계담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쌍계루는 1370년에 붕괴된 이후 1377년에 복구됐고, 지금의 쌍계루는 1980년에



은해사 계담은 주변의 암벽이 특징적이다.



백양사 계담은 넓은 면적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1370년 붕괴됐다가 1377년·1980년 중수된 쌍계루에서는 계담에 비친 백암산을 감상할 수 있다.

복원됐다. 1381년에 쓴 이색의 '백암산정토사쌍계루기(白巖山淨土寺雙溪樓記)'에는 "이곳에서 두 계곡의 물이 합쳐지므로 '쌍계루'라고 이름했다"는 기록이 있어 쌍계루의 역사를 고증한다. 백양사 계담은 풍수지리적 차원에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경관적으로 볼 때, 백양사 대웅전 후면에 높이 솟아있는 백암산(741.2m)의 그림자를 물위에 비치도록 하는 영지의 기능이 우선된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사찰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저수조로 활용됐을 것이다.

해인사에도 사역 동측편으로 흘러내리는 계류를 막아 계담을 만들었다. 계담 전면부에 영지라고 새긴 자연석을 세워놓아 이 계담이 영지의 기능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전부터 해인사에는 영지가 있어 가야산 봉우리가 물 위에 비쳤다. 이 영지가 지금 우리가 보는 계담인지는 분명치 않다. 해인사 계담은 호안을 산에서 가져온 큰 자연석으로 돌아가며 쌓았는데 잔잔한 수면에 비치는 주변의 삼라만상이 마치 일품이며 사계절의 변화가 무쌍하여 아름답기가 그지없다. 더구나 이른 봄 새벽녘 동틀 무렵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면 가히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과연 이곳이 속세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편으로 길게 자리한 계담. 무지개 다리와 그 위 회랑 모양 건축물과의 조화가 빼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다.



해인사 계담에 비치는 삼라만상의 풍경은 일품이다.

러내리는 오대천이 사역 남쪽에 자연적으로 고여서 형성됐다. 다른 사찰에서 인공적으로 보를 막아 조성한 계담과는 차이가 있다. 이 계담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 금강연(金剛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역 바로 전면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 물이 많아 사찰에 머무는 생기를 보호하는 풍수적으로 길한 물에 해당된다. 또한, 계담의 수면에 주변 여러 가지 사물들이 비치는 영지의 기능을 하기도 하여 경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갖는다. 예로부터 월정사에 사는 스님들이 좋아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조용히 앉아 선정에

들기도 좋고, 주변을 포괄하면서 자연을 느끼기에도 적당하니 스님들이 좋아할 만도 했으리라. 또, 이곳에는 냉수성 어류인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데,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이것을 보면 금강연의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은해사 보화루 맞은편 계류에도 낮은 보를 막아 만든 계담이 있다. 이 계담 역시 다른 사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맑고 주변의 경관이 수려해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곳이다. 특히 계담 주변으로 형성된 깎아지른 듯한 암벽은 깊은

산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경관이어서 지난날 은해사의 입지성을 짐작케 한다.

그밖에도 계담을 볼 수 있는 사찰은 이곳 저곳에 많이 있다. 당장 생각나는 곳으로는 마곡사, 통도사, 고운사, 천은사, 기림사 등인데, 이 사찰의 계담 역시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풍수적·경관적·자연적으로 다양하게 기능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특허출원: 20-2011-006164

추령통 및 13종(65가지) 물묵을 담은 물묵한 물묵함 세트 사이즈(370x250x100)

금함 추령통 및 오방경 팔연연화 시리함 양면원경 오보병 등을 팔연대용련지도 위에 펼친 전경

은함 추령통 및 오방경 팔연연화 시리함 양면원경 오보병 등을 팔연대용련지도 위에 펼친 전경

대(80x210): 금합 350만원 / 은합 300만원  
중(80x155): 금합 300만원 / 은합 250만원  
소(50x115): 금합 190만원 / 은합 150만원

불복장 의식 문의 010-2685-0361  
불복장 의식 연구소장 세림스님께서 직접드립니다.

## 諸佛菩薩 腹藏莊嚴具

### (부처님 복장점안 장엄구)

복장장엄이란 부처님을 조상하고, 그 내부에 여법하게 종교적 절차를 거쳐 점안을 거쳐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내게 하는 의례과정입니다. 복장의례에 관한 경전은 조선시대 재구성된 "조상경" 및 관련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총 4차례에 걸쳐 재구성된 복장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의경전과 전통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장장엄 의례 및 과정에 대한 이해는 그리 높지 않아 불교문화를 계승하는 견지에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유상아트에서는 가장 근래에 재판된 유점사본 조상경을 토대로 하여 후령통과 납입물묵을 재정리하고, 의례까지 재현하여 본 '불복장 장엄구세트'를 스님 및 불자들에게 선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장장엄과 관련한 여러 경전과 유점사본 조상경에서 일치되지 않고 혼돈을 보이는 오방색에 대해서 유점사본의 조상경의 대부분 물묵의 색에 오보병을 맞추어 오방위의 색을 통일시켜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불복장장엄구의 재현은 불복장장엄 절차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고, 이는 한국 불교문화의 올바른 구성이라는 견지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불복장장엄구의 재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세림스님과 최태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 불교문화의 올바른 계승으로 이어지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6년 2월

유상아트 김명환 합장

특허출원: 30-2011-0042460

**般若波羅密多心經 금등반아심경**

고려대장경의 반아심경판본입니다.

- 크 기: 28.8cm x 14.6cm
- 재 질: 표면처리 순금 24K
- 보급특가: 300,000원

**목판반아심경**

- 크 기: 28.8cm x 14.6cm
- 재 질: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150,000원

**한글반아심경**

- 크 기: 28.8cm x 14.6cm
- 재 질: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150,000원

**신묘장구대다라니**

- 크 기: 28.8cm x 14.6cm
- 재 질: 원목무늬, 원목좌대
- 보급특가: 250,000원

\* 법보시용, 감사패, 공로패 대응으로 가치 충분합니다.  
\* 좌대(받침대)에 24K 금박으로 원하시는 글씨를 새겨드립니다.